英 여왕 서거 세계 전역 애도 물결

바이든 "그는 시대를 규정했다"
기시다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
푸틴도 젤렌스키도 "깊은 슬픔"
미국·프랑스 등 각국 조기 게양

영국의 상징이자 최장수 군주였던 엘리자베스 2세가 8일(현지시간) 서거하자 국제사회의 애도 물결이 이어졌다고 AP와 AFP,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회의 중 서거 소식을 접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부인 질 여사와 공동 성명을 내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군주 이상이었다. 그는 시대를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적인 변화의 시대에 여왕은 영국인에게 안정과 자존심의 지속적 원천이었다"며 "여왕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존엄한 지도자였으며, 미국과 영국의 동맹을 지속해서 심화시켰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인과 함께 미국 주재 영국대사관을 방문해 "여왕은 위대한 여성이었다"며 다시 한번 애도를 전했고, 백악관과 모든 공공장소, 군부대에 조기를 게양하게 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의회에 같은 지시를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여왕의 우정과 지혜, 그리고 유머 감각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썼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부인 미셸 여사와 함께 "첫 흑인 대통령으로서 세계무대에 섰을 때 여왕이 두 팔 벌려 환영해줬다"고 기억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국 국민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큰 손실"이라며 "여왕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매우 큰 역할을 했으며 영일 관계 강화에 큰 공헌을 했다"고 애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2세의 아들로서 왕위를 승계한 찰스 3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여왕은 수십 년간 영국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세계 무대의 존중을 받아 마땅한 분이었다"고 기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여왕의 서거 소식은 깊은 슬픔"이라며 "우크라이나 국민을 대신해 이 돌이킬 수 없는 상실에 대해 영국 전체와 영국 연방에 진심으로 애도를 전한다"고 밝혔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 전역에서도 추모 메시지가 이어졌다.

역사적으로 영국과 라이벌 관계이기도 한 프랑스는 대통령궁과 관공서에 조기를 게양하며 엘리자베스 2세에 대한 예의를 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여왕은 다른 어떤 국가원수보다 더 자주 대통령궁을 찾았고, 동시대를 보낸 8명의 프랑스 대통령을 모두 알고 지냈다"며 "여왕은 20세기 역사의 거인들 옆에 우뚝 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여왕은 사회 진화 속에서 전통의 가치를 지켜왔다"고 말했고,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여왕은 영국과 유럽 역사의 증인이자 저자였다"고 평가했다.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도 찰스 3세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우리 모두의 모범이 되어준 여왕은 미래 세대에 견고하고 가치 있는 유산을 남겨줬다"며 "그가 그립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찰스 3세에게 전보를 보내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여왕은 의무에 헌신한 본보기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고한 증인"이라고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여왕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의 식민지 독립과 영연방의 진화라는 큰 변혁을 지나는 속에서 든든한 존재였다"고 말했다.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 국왕은 찰스 3세에게 "여왕은 리더십의 롤모델이었고, 이는 역사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라고 애도를 전했다.

과거 영국 식민지 국가들로 구성된 영연방에서도 추모가 이어졌다.

영연방 사무총장인 퍼트리샤 스코틀랜드는 "현대 영연방의 성장과 맥동은 여왕의 헌신과 지혜, 그리고 리더십 덕분"이라고 말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여왕을 가리켜 "우리 시대의 충실한 일꾼이었다"며 "공적 생활을 통해 위엄과 품위를 드러냈다"고 추모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번 여왕과 함께 자리했던 것이 마지막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다"며 "여왕의 존재는 캐나다 역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영원히 간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호주인들의 마음은 영국 국민과 함께한다"고 말했고,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70년 재임 기간은 우리 모두에 대한 그의 헌신에 대한 확고한 증거였다"고 말했다.

카리브해 국가들도 영국 식민지 시절 노예제 배상 요구 등에 따른 갈등을 잠시 접고 엘리자베스 2세 추모 물결에 동참했다.

앤드루 홀니스 자메이카 총리는 여왕이 자국을 자주 찾았다며 "의심할 여지 없이 여왕은 자메이카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며 "그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은 슬프지만, 그의 역사적인 통치를 기억할 것"이라고 애도했다. /연합뉴스

탈레반 "여자 중·고교 폐쇄는 문화 이슈"

"부모도 등교 원하지 않아"
교육부 장관 억지 주장

아프가니스탄 집권 세력 탈레반이 중·고등학교 여학생 등교 금지는 문화적 이슈로 학부모도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누룰라 무니르 탈레반 정부 교육부 장관 대행은 11일(현지시간) 여자 중·고교 폐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하아마통신 등 아프간 매체와 dpa통신이 보도했다.

무니르 장관은 "우리는 이곳의 문화를 안다"며 "특히 외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10대 여자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탈레반 체제하에서 중·고등 여학생 교육이 중단된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억지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탈레반은 지난해 8월 재집권 후 남학생과 저학년 여학생에게는 차례로 등교를 허용했지만 중·고등 여학생의 등교는 대부분 막아 교육 기회를 박탈했다.

이에 이달 초 동부 파크티아주의 주도 가르데즈의 여자 중·고교 4곳과 삼카니 지역의 여학교 1곳 등 5곳이 약 1년 만에 문을 열었다.

지역 주민과 교장들이 탈레반 정부의 승인 없이 등교를 재개한 것이다.

그러자 탈레반 정부는 지난 10일 해당 학교를 다시 강제로 폐쇄했다고, 외신은 현지 주민과 소셜미디어(SNS)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날 등교했다가 귀가 지시를 받은 학생 중 수십 명은 거리에서 행진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SNS에서는 이들 여학생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다.

탈레반은 1차 집권기(1996~2001년) 때 샤리아(이슬람 율법)를 앞세워 여성의 외출, 취업, 교육 등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재집권 후에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포용적 정부 구성, 인권 존중 등 여러 유화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지만 상당 부분은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여성 인권 침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분위기다.

탈레반은 중·고등 여학생의 등교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음에도 지난 3월 23일 새 학기 첫날 말을 바꿨다. /연합뉴스

미국 뉴욕 등 3곳서 9·11 테러 21주년 추념식

사상 최악의 테러 사건으로 꼽히는 9·11 테러 21주년 추념식이 미국 뉴욕과 워싱턴DC, 펜실베이니아 등 3개 지역에서 나눠 열렸다.

11일(현지시간) 오전 8시 46분 미국 뉴욕 맨해튼의 그라운드 제로에서 희생자 가족, 해리스 부통령 부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행사가 열렸다.

행사 시각은 21년 전 테러범이 납치한 아메리칸 에어 여객기가 맨해튼 세계무역센터(WTC) 북쪽 건물에 충돌한 시간에 맞춰 열렸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된 행사에선 당시 사망한 3000명에 가까운 희생자들의 이름이 한 명씩 낭독됐다.

또 WTC 남쪽 건물과 북쪽 건물이 붕괴한 시간에도 묵념이 이뤄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8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버지니아주(州)의 국방부 건물의 테러 현장에서 열린 추념 행사에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헌화하고 추념사를 한 오전 9시 37분은 21년 전 국방부 건물이 공격당한 시간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11년 제거된 테러의 주범 오사마 빈라덴과 함께 최근 드론 공습으로 사망한 아이만 알자와히리를 언급하면서 미국에 대한 공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그는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혼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펜실베이니아 생크스빌에서 열린 추념 행사에 참석했다.

한편 미국 정치권도 9·11 테러 21주년을 추념했다. /연합뉴스

일본, 외국 관광객 비자면제·개인여행 허용 검토

일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비자면제 재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장관은 11일 민영방송 후지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코로나19 입국 규제와 관련해 하루 5만명인 입국자 수 상한의 철폐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하라 부장관은 또 관광객 비자 면제와 개인 여행 허용을 언급하면서 "완화를 위해 확실히 검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는 가을과 겨울의 매력이 있다.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며 외국인 관광객을 맞기 위한 입국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일부터 하루 입국자 수 상한을 기존 2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리고 동행 안내원(가이드)이 없는 패키지여행을 허용했다.

기하라 부장관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가능했던 무비자 개인 자유 여행의 허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힌 셈이다. /연합뉴스

스페인 카탈루냐 국경일 맞아 독립 찬성시민들 집회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 국경일 '라 디아다'(La Diada)인 11일(현지시간) 카탈루냐 지방 독립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바르셀로나에서 카탈루냐 기 '에스텔라다'와 '자유'라는 글자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라 디아다'는 1714년 바르셀로나를 침공한 스페인 왕국에 끝까지 저항했던 카탈루냐 시민들을 기념하는 날로, 매년 카탈루냐 독립 찬성론자들은 이날 대규모 집회를 연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대규모 반격으로 영토 곳곳 수복

하르키우·이지움 통제권 되찾아

침공당한 지 200일째를 맞이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향해 거침없이 반격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패퇴하는 러시아군은 애먼 화력 발전소 공격으로 응수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군사 시설도 없는 민간 시설에 보복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이달 들어 자국 영토 약 3천㎢를 수복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서울 면적(605㎢)의 약 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날 우크라이나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과 가까운 내륙도시 이지움의 통제권을 되찾았다. 이지움은 러시아군이 군수 보급 중심지로 활용해 왔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대규모 반격 작전을 통해 하르키우 주요 지역 곳곳을 수복하는 한편 러시아군 점령지를 향해 전선을 꾸준히 전진시키고 있다. 이는 초기 키이우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막아낸 데 이어 최대 성과로 꼽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 200일째를 기념하는 연설에서 "200일간 탱크 2천대, 장갑전투차량 4천500대, 포대 1천문, 항공기 250대, 헬기 200대, 드론 1천 대, 함정 15척을 파괴했다"고 밝혔다. 그는 군 장병, 응급구조단 등을 향해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노고를 위로했다. /연합뉴스